

## 건설산업 시장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

# 재무상태 건전성 확보가 경쟁력의 가장 큰 원천

8개 대형건설사 기술연구소들의 모임인 건설산업발전연구회가 주최한 「건설산업의 시장전망과 대응 전략 국제세미나」 지난 11월 16일 강남 아미가호텔에서 개최되었다.

다음은 한국, 미국, 일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. [편집자 註]

## 내년부터 산업구조 본격 개편

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

당분간 신규 건설업체 수의 진입이 더 늘어나고 부실건설업체의 시장퇴출작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. 워크아웃·법정관리·화의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업분할이 활성화 될 가능성도 높다.

경쟁구조 측면에서 보면 민간건설시장은 재무상태가 좋은 극소수 대형건설업체의 시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고, 공공건설시장에서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앞으로는 턴키공사 수주에 주력할 것이며, 신규등록업체들은 소규모 공사수주를 노릴 것이다.

중견 및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비중은 공공, 민간시장을 불문하고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이나 건설보증시장의 개방과 이행보증제도의 활성화 등이 추진됨에 따라 수주경쟁에서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
턴키나 건설사업관리방식의 활성화는 당장 2~3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.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미진한 상황에서 턴키발주나 건설사업관리발주를 할 인센티브가 공공발주자에게 없고, 제도적 장치의 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.

내년이야말로 21세기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구조개편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. 건설시장의 세계화·정보화 추세 속에서 21세기의 건설산업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건설산업 구조를 형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.

## 최저보다 최선 가격 선호될 듯

루이스 프루돔 미국 건설산업연구소 부소장

과거 최저가낙찰제가 경쟁을 촉진시키고 최선의 가격을 유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나, 최근에는 발주자들이 최선의 가격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발

주와 계약자간의 협조관계를 중시하는 Design-Build 등과 같은 계약체계가 점차 일반화  
가 되고 있다.

건설산업에도 B2B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. 자본시설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되  
어 많은 기업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, 시행착오 후에 얻은 노하우를 다른 기업들과  
함께 공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.

하이테크산업에는 투자의 라이프사이클이 짧다. 따라서 빌딩 등의 시설도 짧은 기간 내  
에 다른 목적에 맞게 쉽게 개조될 수 있어야 한다.

다양한 업체 및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기술자와 기능인력의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표  
준측정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.

교량, 도로 등의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이를 보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. 따  
라서 신소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내구연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.

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건설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동화 기술의 활용으로 노동집약도  
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.

시설물 건설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간의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어 각 관련자가 새로운 정  
보를 주입하여 상호 교류가 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, 이러한 정보들이 다른 발주자, 계약  
자, 공급자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.

## 자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

하지메 스즈키 일본 건설경제연구원 상무

일본 건설산업의 주요 현안문제로는 품질보증제도의 강화, 건설노동인력의 기술력 강  
화, 공사감독수준의 강화, 정보통신기술의 활용, 연구개발투자, 환경영향평가제도, 건설  
자재의 재활용제도 등을 들 수 있다.

공공공사의 품질보증기준으로 ISO9000 적용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도에는 36개의  
시범현장을 지정하여 입찰자에게 ISO9000 인증서를 요구할 방침이다.

노동부는 건설기능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평가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, 다  
기능 기술자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체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.

대형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인터넷 구매체계의 구축 등이 추진되  
고 있다. 일본 건설부는 1997년 6월 CLAS/EC 전략계획을 수립해 2004년까지 건설  
CLAS/EC 체계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일본 정부는 2000년을 재활용 중심사회의 첫해로 정하고 재활용 사회구현을 위한 기본  
법, 폐기물 처리법 개정, 건축물 자재활용법 제정, 건설산업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  
력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